

---

# 한국정책방송원 업무보고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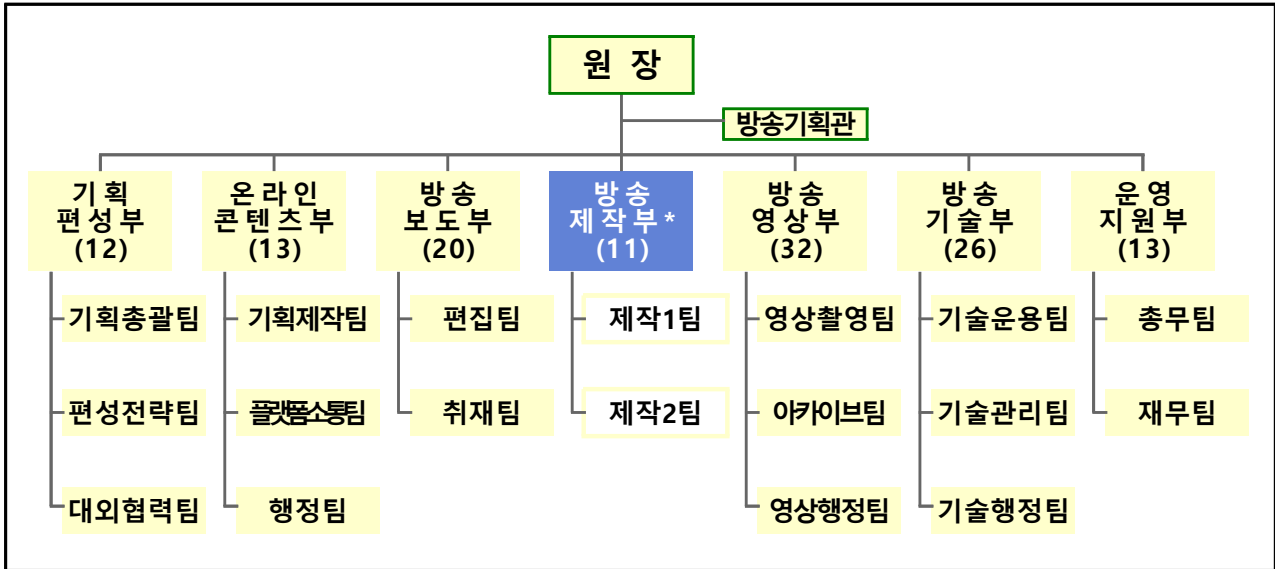
2026. 1. 16.



한국정책방송원  
KTV 국민방송

# I. 일반현황

## 1 기구 및 조직 현황



\* 내부 기본운영규정 개정 예정(26.2~) : ▲ 방송제작부 개편(①디지털중계1팀(MNG), ②디지털중계2팀(중계차), ③제작팀) ▲ 부서 간 업무 조정

## 2 인원 현황

(25.12.31 기준, 단위 : 명)

구분	계	고공단	임기제 가급	3.4급	4급	4.5급	5급	6급이하	전문경력관
정원	127	1	1	1	6	1	15	101	1
현원	113	0	1	0	7	1	15	89	0

\* 전문임기제(정원외) 8명 별도(방송제작2, 방송심의1, 방송기술1, 방송기자3, 변호사1), 공무원 75명 별도

## 3 예산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'25예산 (A)	'26예산 (B)	증감	
			(B-A)	(%)
계	32,731	40,492	7,761	23.7
○ 사업비	22,838	30,606	7,768	34.0
가. KTV 운영	21,916	29,684	7,768	35.4
나. 전산운영경비(정보화)	922	922	-	-
○ 기관 운영비(인건비 등)	9,893	9,886	△7	△0.1

## Ⅱ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 방향

### ① '25년 성과 및 보완점

#### □ (성과) 국정홍보 전문채널로서 위상 강화

- (국정 현장 공개)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개선('25.6~), 국무회의 단독 생중계('25.7~), 부처 업무보고 최초 생중계('25.12) 등 국민의 정책 정보 접근권 증진
  - \* 생중계 실적 : 대통령 행사(타운홀 미팅, 100일 기자회견 등) 48회, 국무회의 중계 17회 등
  - \*\* '25.7.21~12.31 기준, 72건 중계 → 평균 주 3회('24년 동 기간 대비 279% 증가)



- (국정 성과 홍보) 적시에 집중적으로 새 정부 출범 D+ 계기별 국정 성과 홍보\*를 실시해 국정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
  - \* 출범 100일, 출범 6개월 성과 특집 프로그램 등 기획·제작

#### □ (성과) KTV 영상물 대국민 개방 단계적 추진

- (나누리 포털) 'KTV 영상물 전면 개방' 정책('25.7.9)에 따라 기존 미디어사 중심의 '나누리 포털'(아카이브 플랫폼) 운영방식을 일반 국민 대상 개방 구조로 전환('25.9.8~)
  - \* (다운로드) ('24.9.8~12.31) 2,606건 → ('25.9.8~12.31) 13,735건, 약 5.2배 증가 (누적 이용자 수) 개방 전 1,156명 → 개방 후 2,087명('25.12.31 기준), 931명 증가
- (법제도 정비) 전면 개방에 필요한 권라·의무 명확화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 정비
  - ▲총리 훈령 제정\* ▲영상 자료 아카이브 규정 개정\*\* ▲이용약관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국정 영상의 개방·관리·이용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
  - \* (총리 훈령) 정책홍보 영상물의 제작, 국정 기록 및 대국민 개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사항 등을 규정('26.2월 시행 예정)
  - \*\* (아카이브 규정) 국유재산으로 등록된 대한뉴스도 무료 이용 가능토록 개정 등

□ (성과) 온라인 채널 차별화

- (채널 차별화 전략) 새 정부 출범 계기 국민적 기대감을 반영, 대통령 소통 행보 전문 신규 채널 'KTV 이매진' 개설로 '투명한 정책 소통·결정 과정 공개'라는 새 정부 국정 기조 구현

<KTV 이매진 주요 현황('25. 12. 31. 기준)>

		채널 개설	2025. 6. 4.
		총 구독자	26만 명
		총 조회수	8천7백만 회
		콘텐츠 제작 건수	1,382 개

- (온라인 사회적 대화 채널 'K-토론나라') 청년, 문화, 일자리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제안하고 정부가 경청·수렴하는 시스템을 통해 정책 과제 공론장 마련과 직접 소통 채널 역할 수행



□ (성과) 광복 80년 KTV 대기획 시리즈 제작

- (장기프로젝트) KTV 대표 대기획 시리즈(58편) 완성
  - 「빛나는 시간들: 대한민국 영광의 20 장면」 등 58편을 통합 브랜드로 기획 및 제작·편성을 통한 1년간의 장기 프로젝트 완성

				
빛나는 시간들 대한민국 영광의 20장면 <b>3</b> 편 토크쇼 / 다큐	빛나는 시간들 대한민국 영광의 20장면 <b>20</b> 편 다큐멘터리	광복의 유산 80년의 조각들 <b>3</b> 편 데이터 다큐멘터리	그때 그리고 지금 新문화영화 <b>30</b> 편 기록 다큐멘터리	광복 100년 미래로 보내는 타임캡슐 <b>2</b> 편 연말특집

□ (성과) 2025 케이블TV 방송대상 PP 작품상 수상

- (아카이브 활용) 「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」\* 방송대상 PP 작품상 수상
  - \* 종합 구성물, 50분 / 본방송 : 매주 금요일, 21시 10분

## □ (보완점) 시청률 및 온라인 채널 성장률 제고 필요

- (시청률) 전체 채널 유료방송 시청률 감소세에도 불구하고, KTV는 '22년 이후 상승 및 지속세 기록. 다만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KTV 대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신규 시청층 유입 확대 필요  
\* 목표 시청률 2년 연속 달성: ('24) 목표 0.045%-실적 0.046% / ('25) 목표 0.046%-실적 0.046% ('24~'25년 공공·공익채널 중 유료방송 시청률 1위 달성)
- (온라인 채널) 대국민 개방에 따른 타사와 동일 소스 공유 및 활용으로 채널 성장률 다소 둔화. 콘텐츠 개발 등 개선 방안 마련 필요

## □ (보완점) 노후장비 교체 및 신기술 도입 필요

- (장비 노후화) 세종청사 이전('14년) 시 도입된 장비들이 노후화되고 있어,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잠재적 방송사고 대비 필요
- (신기술 도입) 효과적인 정책 소통을 위해 최신 제작기술 도입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인프라(전용 스튜디오, 전용 부조정실 등) 확충 요구

## ② 향후 업무추진 방향

### □ 국정 소통 투명성 제고

- (국민 직접 소통 강화) 쏘 부처 대상 정책 생중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정책형성·집행과정 이해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
  - \* 정책의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직접 투명하게 공개 및 댓글 통해 국민 의견 수렴

### □ 국민 체감형 정책 소통 혁신

- (국민 체감형 소통) '26년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임이 각인되도록 정책 성과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소통 방식 강화
  - 정책 수혜자 관점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콘텐츠\* 확대
  - \* 정책 수혜자가 직접 출연하여 정책을 설명하고 성과를 공유
- (온라인 소통 혁신) 범정부 홍보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KTV 온라인 콘텐츠의 중요성 증대, 민생과 밀접한 킬러 콘텐츠 제작\* 등 혁신
  - \* 재난·안전 분야 등의 공무원 참여 영상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이해도 제고 등

### □ 국정기록 영상 전면 개방 및 확산

- (독자 중계 체계 확립) 저작권 제한 없는 국정영상 개방을 위해 타 방송사와의 공동 중계 체계에서 KTV 전속·직접 중계제작 체계로 전환 완성\*
  - \* 관련 규정 정비, 조직 혁신, 업무 체계 확립 등
- (KTV 역할 재정립) 국정홍보 채널을 넘어 국정 영상 기록의 수집·개방·확산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역할 재정립
  - 전 국민의 자유로운 국정 기록물 이용·활용 권리를 보장하고, 개방된 영상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는 공공콘텐츠 확산\* 플랫폼 기능 강화
  - \* 대국민 개방된 국정 영상을 활용하여 교육·연구용 콘텐츠 제작 활성화 등

👉 2026년을 ‘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’이자 ‘정책 성과가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해’로 만들기 위해, KTV는 국정의 전 과정을 기록·개방하고 국민과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공공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역할 강화

### 3 추진 전략

<b>미션</b>	<b>국정 전 과정 기록개방, 국민과 정책성과 공유</b>
<b>비전</b>	<b>정책 체감형 국민의 방송으로 대도약 하는 KTV</b> - 정책을 담다 국민을 잇다 KTV 국민방송 -



전략과제	추진과제
<b>국민 체감형 정책 소통 혁신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속 · 정확 · 투명한 정책 소통</li> <li>■ 온라인 정책 소통 대표채널 구축</li> </ul>
<b>국정기록 전속기관으로 역할 재정립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디지털 중계 전 부처 확대</li> <li>■ 디지털 중계 장비 및 시스템 고도화</li> </ul>
<b>공공영상 순환체계 구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정 영상기록 수집 체계 강화</li> <li>■ 대국민 영상 전면 개방 · 관리 체계 전문화</li> <li>■ 공공 플랫폼 기능 확대</li> </ul>
<b>국민과 함께 성장 기반 마련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민 · 민간 · 정부와 함께 성장하는 채널</li> <li>■ 신기술 활용 방송시스템 구축</li> <li>■ 조직 역량 강화 · 조직 문화 개선</li> </ul>

### Ⅲ. 중점 추진과제

#### ① 신속·정확·투명한 정책 소통

##### □ 2026년 국정방향 및 성과 확산

- (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2026년)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외교·안보 등 전 분야의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 위한 국정방향 및 성과를 집중 홍보
    - '5대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'\*의 성과를 조명하는 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
- \* ①수도권→지역 주도 성장, ②대기업→모두의 성장, ③속도→안전·지속 성장, ④상품제조→문화 콘텐츠 중심의 성장, ⑤전쟁 위협→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

##### □ 정책홍보 신속성 제고

- (신설 LIVE 정책 K) 실시간 정책홍보 및 정책 해설로 정책 수혜·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정보 전문 프로그램 신설

##### ■ 신설 프로그램(안)

(생방송) LIVE 『정책 K』 (가제) (월~금, 3회 방송)(10:00, 13:00, 16:30)

- ▶ 프로그램 구성(안)
  - 정책 하이라이트(핵심 정책 및 주요 현안 집중 조명) + 오늘의 주요 뉴스(취재 리포트, 뉴스 토크 현장 연결 MNG) + 기획대담(전문가 대담 및 심층 해설) + 분야별 정책정보 등
- ▶ ①민생정책, ②부처정책, ③정책이슈 중심으로 하는 정부 부처 장·차관, 전문가 출연, 123대 국정과제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부정책 분야별 세부정보 제공

##### □ 데이터 기반 정책 홍보 확대

- (데이터 강조 홍보) 정책 변화를 시각화하는 숫자 중심 해설로 국민이 쉽게 정책 효용성을 체감하도록 유도
  - 정책 데이터를 압축해 보여주는 1분 숏폼 형식, 정책으로 실제 변화된 수치 제시를 통해 국민이 정책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제작

■ '정책.DATA.ZIP'(가제) 제작(안)

- 정책의 핵심 통계 데이터를 하나의 ZIP파일처럼 압축해 보여주는 영상
- 1분 내외 세로형 숏폼 시리즈(인트로 숫자 → 변화 시각화 → 정책 설명 → 한 줄 인사이트)

· 데이터 시각화 활용: 직관적 움직이는 수치, 모션 그래픽 적극 활용



- (배포·확산 체계화) 국가데이터처 및 데이터 생성 기관과의 협업 통해 전 부처 확산 및 공공데이터 활용 모범사례 구축



## ② 온라인 정책소통 정부 대표채널 구축

- KTV 국민방송<sup>유튜브</sup> 구독자 100만 달성을 위한 콘텐츠 강화
  - (잼프의 참모들 개편)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‘잼프의 참모들’ 시즌제 제작을 통해 ‘정부형 오리지널 콘텐츠’ 모델 마련
    - 본편 外에 변외 편, 쇼츠 등 콘텐츠 다양한 포맷의 후속 콘텐츠 제공
    - 출연 참모진의 정책 홍보 메신저 역할 강화
    - 출연 인물 범위 확대\*를 통해 주제 다양화 및 차별화 도모
  - \* (실무진) 전속 사진사, 경호원, 조리사 등 / (청와대 외) 장관, 위원회 위원장 등
  - (명벤져스 시리즈 제작) ‘국민대리인의 활약(국무위원 인터뷰 다큐) 흥행’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콘텐츠 발굴·기획을 통해 정책 팬덤화 및 채널 성장 견인
    - \* '25년 실적 : 총 5편(본편 1, 클립 4) 제작, 조회수 93만, 구독 유발 4.2천 명
  - (신규 콘텐츠 기획) 민간 채널 접근이 어려운 안전·재난 현장중심 소재를 발굴하여 KTV 유튜브 채널만의 차별화된 공공 콘텐츠 확보
    - 재난·안전 분야(항공관제, 산불·구조 등) 현장 공무원의 임무·역할을 조명하고 위기 대응 과정에 대한 국민 이해도 및 신뢰도 제고




### ■ 신규 시리즈 콘텐츠 제작(안)

- ▶ 대한민국 공무원(본편): 국민의 생명, 안전, 생활을 지키는 핵심 실무직군의 업무 현장을 다큐멘터리 기반으로 제작(재난, 안전, 생활, 아동·청소년 등)
- ▶ 60초 공무원(숏폼): 출동·장비 작동 등 이해도와 친화성이 높은 장면 중심으로 확산
- ▶ 비하인드(대담): 실무자·전문가를 통한 정책 해석 및 현장 사례 분석 심층 콘텐츠

숏폼	본편	대담형
		
현장 활동 중심, 본편에 대한 관심 유도	임무 수행 과정을 중심으로 현장감 있게 전달	정책적 의미와 비하인드 등을 후속 콘텐츠로 제공

- 대통령 국정행보 콘텐츠 경쟁력 강화
  - (쇼츠 개선) 쇼츠 콘텐츠 이용 증가\*에 따라 ‘KTV 이매진’ 채널의 주제·사례별 쇼츠 다양화\*\* 및 자체 촬영팀 활용하여 타 방송사 대비 쇼츠 제작 신속성 증진
    - \* 쇼츠 콘텐츠 이용 : 유튜브 전체 조회수 50% 및 구독 유발 콘텐츠 40% 차지
    - \*\* 쇼츠 라이브·스토리텔링형·직접 촬영 쇼츠 등 제작 추진

<유형별 제작 내용(안)>

소통 중심 정책 홍보 쇼츠	긴급 정책 홍보(SB) 쇼츠	신속 공개 쇼츠 콘텐츠
		
VLOG / 쇼츠 생방송	사례형 / 국민 참여형	캠페인 / 정보형

□ 온라인 생방송 제작 확대

- (생방송·인터랙티브 강화) 생방송은 국민과 정부가 ‘즉각적으로 연결’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속 확대, 강화



□ 온라인 특성화 채널 운영 최적화

- (영향력 강화) 온라인 트렌드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채널\* 관리 전략 시행
  - 채널별 핵심성과지표(구독자, 조회수 등) 설정을 통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
  - \* ▲유튜브 'KTV 국민방송', 'KTV 이매진' 등 보유채널 총 구독자 약 270만 명(25.12.31 기준)
- (목표시청층 세분화) 중장년층, 정책 이해관계자 중심 → 청년·시니어·해외 시청자 등 맞춤형 콘텐츠 제작, 시청층 확대

- ▶ (청년층) 밈(Meme), 트렌디한 챌린지, 문화게임 연계, (시니어층) 쉬운 용어 설명, 생활 밀착형 정책, (해외 시청자) 다국어 자막과 글로벌 이슈 연계 콘텐츠 등
- ▶ (브이로그 다큐, 등 멀티포맷 도입) 포맷별 차별화, 제작 주기 및 업로드 방식 다양화

- (TV-유튜브 채널 믹스, 유입 확대) 디지털 콘텐츠를 TV에서 볼 수 있도록 편성 → TV 시청층을 유튜브 채널로 유입
- (메인, 서브채널 활용) 유튜브 메인 채널 + 테마별 서브 채널 전략적 활용 (틱톡, 인스타 릴스 → 유입 채널로 활용 후 유튜브 채널로 연결), 구독층 확대

### 3 디지털 중계 전 부처 확대

#### □ 전 부처 대상 정책 생중계 지원체계 구축

- (구축 배경) 영상 저작물 전면 개방 발표('25.7.9) 이후, KTV의 정부 주요 행사 독자 KEY사 역할 수행\*
  - \* "정책홍보영상물의 제작·관리 및 개방에 관한 규정(안)" 총리 훈령 제정('26.2 시행 예정)
- (중계 확대) 국정기록 전속기관 및 아카이브로서 중계 대상을 대통령실·총리실에서 전 부처로 확대하고 정책 발표 및 논의 과정까지 생중계
  - (지원 범위) 국가 주요행사(대통령, 국무총리 등)에서 각 부처(기념식·정책발표·토론회 등) 까지 KTV가 직접 촬영 및 현장 생중계(온라인 포함)·녹화 중계

구분	촬영 방식	장비	송출
국가 주요행사(대통령·국무총리 참석)	KTV 직접 촬영	중계차	TV·온라인
부처 주요행사, 정책 발표(브리핑 등)	KTV 직접 촬영	MNG, PTZ*	TV·온라인
	민간협업	민간 보유장비	온라인

■ 송출방식은 상황에 맞춰서 진행 / TV·온라인(유튜브) 병행 및 개별 송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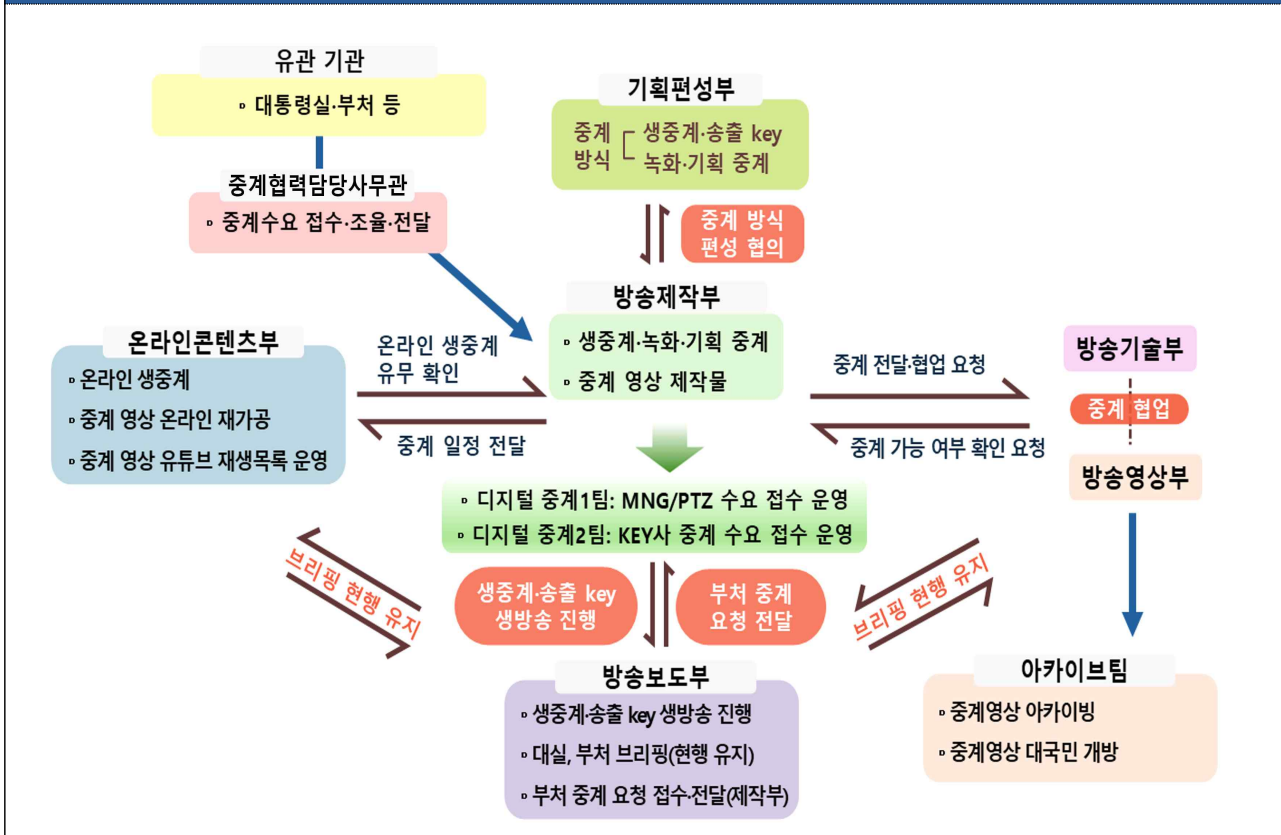
\* MNG(Mobile News Gathering) : 모바일 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장비 / PTZ 카메라 (Pan, Tilt, Zoom) : 좌우 및 상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카메라

- (중계 체계) 중계시스템 개선을 통한 체계적 중계 업무 수행 및 효율화 추진
  - KTV 디지털 중계팀 신설('26.2~) → 국정 영상 중계 업무 체계적 관리
  -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①중계차, ②MNG 등 경량중계시스템, ③민간 프리랜서 등 탄력적 활용, 체계적인 중계 추진
  - ▲(중계차) 안정적 고화질 운영이 필요한 대통령, 국무총리 등 참석 국가 중요 행사
  - ▲(경량중계) 국정과제, 각 부처 현안 정책 발표 및 간담회 등 정부 주요 행사
  - ▲(민간협업) 국정영상 확산을 위해 장기적으로 민간 프리랜서 등과 협업

#### □ 신속·안정적 중계 체계 구축

- (협력 체계) 중계 수요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한 '중계협력전담인력' 지정\* 및 부서 간 업무 협력 체계 마련하여 신속하게 처리
  - \* (역할) 각 부처 중계 수요 접수·조율·전달

## ■ KTV 중계 업무 협력 체계도



○ (가이드라인) 부처 지원 가이드라인\* 마련 및 배포, 대변인 회의 등을 통해 부처 대상 설명회 개최, 현장에서의 혼선 최소화

\* (내용) 생중계 대상 행사, 부처 요청절차, 중계방식 유형, 영상 공개 및 아카이브 기준 등

○ (비상 대응) 국정기록 전속기관으로서 중계 안전성 확보 위해 위기 대응 전략 점검 및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·예방

- (전담조직) 기술·콘텐츠·운영·법률 등 분야별 전문성과 책임을 지닌 KTV 부서별 내부·외부 전문가로 팀 구성\*

\* (역할) 위기 대응 매뉴얼, 위기 수준별 대응 절차,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 마련

- (평가시스템) 현장 사례 공유 및 개선 과제 도출\*하는 중계 평가회의 제도화(월 1회)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

\* 사고 발생원인·방지·복구·개선 사항, 장비 손상 여부, 신호 로그 분석 등

## 4 디지털 중계 장비 및 시스템 고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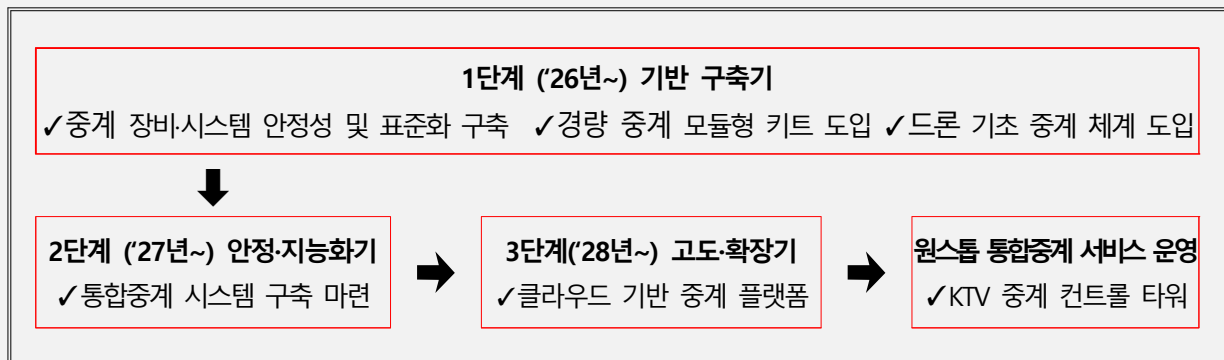
### □ 휴대용 경량중계(MNG/PTZ/드론) 시스템 구축

- (이동성·경량성) MNG와 PTZ 카메라의 결합은 다양한 중계 환경에서 신속한 이동과 원격 제어의 이점을 결합하여 유연한 현장 중계 환경 제공
- (설치·운영 간소화) PTZ 카메라는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소규모 인력(카메라 1~2인, PD 1인, 기술 1인)으로 중계 가능
- (드론중계) 지능형 중계 장비 고도화를 통해 현장 접근성 강화, 기존 중계 방식과 차별화된 영상 제공(버드아이샷<sup>Bird's Eye shot</sup> 등)

### □ 원격제작<sup>REMI(Remote Integration Model)</sup> 중계시스템 도입 추진

- (원격 중계제작) 현장에 중계차 없이 원격 제어 카메라(PTZ) 설치, 운영 컴퓨터, 클라우드 등 최소한의 경량장비 활용, 소수 인력으로 운용 가능  
\* (현장) 카메라·클라우드 등 최소 장비 배치 ➡ (세종) 영상 수신 스위칭음향자막송출을 통합 수행
- (중계 컨트롤 타워<sup>장기과제</sup>)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인프라 통합중계 상황실\* 단계적 도입 → 청와대, 부처 실시간 연결로 KTV가 중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 중계 플랫폼 기능  
\* 신호 상태, 전송 품질, 장비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관제 화면 구축

### ■ KTV 디지털 중계시스템 고도화 3개년 로드맵(안)



## 5 국정 영상기록 수집 체계 강화

### □ 권역별 영상취재 체계 본격 운영

- (권역별 취재) 기존 출입처 중심 취재·촬영 방식을 권역 중심 영상 수집 체계로 전환·안착하여 국정 영상 기록의 안정적 확보
  - 핵심 일정은 KTV 직접 촬영, 반복·보조 일정은 촬영 VJ 활용 등 인력 운영 이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기동성 제고

권역	일정 특성	운영인력	기준
서울권	대통령실·서울청사 핵심일정	정규 촬영인력+오디오맨(프리랜서)	품질·정확도 최우선
세종권	중앙부처 정책브리핑 등 반복 일정	정규 1~2명+ 전담 촬영 VJ(용역)	연속성 대응
지방권	지역 현장(재난 등) 일정	지방권 이동형 VJ	기동성·신속성

### □ 범정부 협업 기반 영상수집 네트워크 구축

- (표준화) 부처별로 상이한 영상 관리 방식을 ‘촬영 → 메타데이터 → 제출 → 저작권 확인’까지 전 과정 표준화
  - 영상 표준절차서(SOP)\* 제정·배포를 통해 국정 영상 수집의 일관성 확보
  - \* 촬영 기준(해상도 등), 파일명 규칙, 메타데이터, 제출 방식 등을 기술
- (협업 유도) 정부업무평가에 ‘영상공유지표’ 신설 추진을 통해 국정영상 수집을 위한 범정부 협업 유도

## 6 대국민 영상 전면 개방·관리 체계 전문화

### □ 총리 훈령 기반 영상 개방·관리 체계화

- (운영지침 제정) 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국정 영상물 공유·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등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 정비
  - \* 부처·지자체 영상 제출 의무화, 부처 영상담당관 지정, 교육·모니터링 정례화 등
- (심의체계 운영) 영상 공개 심의체계 운영을 통해 예외적 비공개·부분 공개 결정의 일관성과 공정성 확보
  - \* 법률·기록·아카이브 분야 전문가 참여로 전문성 강화 및 분쟁 예방

## □ 영상 전면 개방 체계화

- (기본 방향) 저작권 등 권리관계 복잡도에 따라 이원화하여 추진
  - (즉시 개방) KTV 독자 촬영\*에 의해 독점적으로 저작권 확보된 정책 영상 등은 신속·편리하게 유튜브·나누리 포털을 통해 실시간 개방 중
    - \* 'KTV 대국민 저작물 개방 전면 발표'(25.7.9)에 따라 단독 촬영 체계로 전환
  - (단계별 개방) 방송본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영상은 정비\*를 통해 대국민 수요가 높은 콘텐츠부터 확대\*\*
    - \* 이용자가 쉽게 검색·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 보완, 메타정보 정비, 오류 수정 등
    - \*\* 중장기 개방 계획(안)에 따라 연차별·유형별 개방 물량을 체계적으로 확대

<KTV 보유 영상 단계별 개방 계획>

1단계 (2025년)	2단계 (2026년)	3단계 (2027년)	4단계 (2028년)
(개방 현황) 24.4만 건 ★ 전면 개방 원년 - (촬영본) 187,000개 - (기획영상) 3,000개 - (방송본) 54,000개	(개방 누적) 31.2만 건 ★ 추가 개방 (+6.8만) - (촬영본) 30,000개 - (기획영상) 3,000개 - (방송본) 35,000개	(개방 누적) 38.4만 건 ★ 추가 개방 (+7.2만) - (촬영본) 30,000개 - (기획영상) 5,000개 - (방송본) 35,000개 - (기록사진) 2,000개	(개방 누적) 45.9만 건 ★ 추가 개방 (+7.5만) - (촬영본) 30,000개 - (기획영상) 5,000개 - (방송본) 35,000개 - (기록사진) 5,000개

## □ 누리리 포털 고도화

- (국민 중심 서비스) 기존 '자료제공 중심' 구조에서 국민 이용 경험(UX) 중심의 서비스 구조로 개편 및 전담 서비스팀 구성 통해 이용 실적 제고
  - 국민 누구에게나 개방 등 이용자 중심의 화면으로 전면 개선 및 저작물 검색부터 이용조건 확인·활용까지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
    - \* 정부부처·미디어·일반 국민 누구나 동일한 환경에서 동등한 서비스 제공, 고화질 영상·원본영상 전체 제공, 사진 아카이브 서비스 구축 등

< KTV '누리리 포털' 3개년 이용 목표 >

1단계 (2025년)	2단계 (2026년)	3단계 (2027년)	4단계 (2028년)
이용자 수 2,087명 다운로드 26,863건	이용자 수 8,000명 다운로드 50,000건	이용자 수 30,000명 다운로드 100,000건	이용자 수 60,000명 다운로드 200,000건

- (성과 지표 체계 개선) 보유·수집·개방·이용 전 과정 중심으로 성과 지표 재정비 통해 데이터 기반 분석 강화
  - \* ▲개방지표 : 전체 보유생산되는 콘텐츠 대비 개방률 ▲수집지표 : 자체 국정 영상 수집 및 부처, 회원사 업로드 콘텐츠 ▲이용지표 : 다운로드 수, 조회수 등

## 7 공공플랫폼 기능 확대

### □ 공공콘텐츠 유통·확산 플랫폼화

- (지역영상 연계) 지역방송사와 공동 촬영·활용 협력체계 구축\*하여 전국 단위 국정영상 기록 확충 및 지역 기록물의 나누리포털 연계 제공  
\* KTV-지역 민방 MOU 체결 등
- (거버넌스 구축) 공공영상 활용 촉진 위해 정부·지자체·교육기관·민간방송 등이 참여하는 공공영상 활용 협의체\* 구성·운영하여 활용 정책 공동 개발  
\* (기능) 영상 공유·활용 정책 공동개발 및 민간 플랫폼(OTT) 활용 확대 추진 등
- (생태계 확장) ▲교육연구용 콘텐츠 제작 ▲콘텐츠 제작 공모전 ▲아카이브 활용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KTV를 국정 영상 유통·확산의 중심 플랫폼으로 기능 확대

⇒ (공공콘텐츠 확산 플랫폼화) 모든 언론과 전 국민에게 KTV가 수집·보유한 영상을 활용<sup>창작과 비평, 재구성</sup>할 권한을 보장하며 KTV는 국정영상의 유통·확산 플랫폼으로 기능 확대

## 8 국민·민간·정부와 함께 성장하는 채널

### □ 국민 참여형 콘텐츠 개발

- (별빛 사서함<sup>가칭</sup>) 국민이 직접 제시한 정책 제안 내용을 콘텐츠화하고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쌍방향 콘텐츠 제작
  - 관련 정부 인사가 국민의 의견을 ‘직접 듣고, 공감하고, 답하는’ 3단계 소통방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해 입체적 전개

#### ■ 국민 정책 제안 콘텐츠 세부 제작(안)

- ▶ (형식) 보이는 라디오 형식 활용 정책 제안 소개
- ▶ (출연) 관련 정책 담당자 등
- ▶ (내용) - 온라인으로 접수된 정책 제안 및 대중적 관심이 높은 민원 중 주요 사례 선별
  - 사연을 라디오처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, 주제와 어울리는 배경음악 등 선곡
  - 진행자의 경청, 공감을 통해 정부의 국민 소통에 대한 진정성 전달
  - 필요시 정부의 입장 및 후속 조치 등 전달

## □ 민간사업자와 협업 중계체계 확립

- (민간협업) 정부 전 부처 중계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 전략으로 KTV와 민간사업자<sup>지역민방·제작사·크리에이터 등</sup>와의 중계협력 체계 구축
  - 지역 민영방송사와 중계차·송출장비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중계협력 체계 구축
  - 소규모 행사 관련 프리랜서 ‘중계 크리에이터 풀단’<sup>(가칭)</sup>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중계영상 대국민 홍보·확산 기여

### ■ 민간사업자(제작사·중계 크리에이터)의 <KTV 중계 공공 플랫폼> 참여 과정



## 9 신기술 활용 방송시스템 구축

### □ AI 데이터 활용 고도화

- (AI 정책소통 모델 구축) 정책 검색 시 관련 콘텐츠를 연결해 주는 챗봇 AI를 활용하여 국민의 정책 접근성 강화
- (AI 시청률 분석) AI 기반 시청률·조회수·댓글 등 시청 데이터 수집 및 분석, 시청 트렌드 분석으로 KTV 편성 전략 효율성 증대
  - AI 기반의 반자동 데이터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

현재 (AS-IS)	개선 (TO-BE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료 수집·가공에 시간 소요, 수작업 중심</li> <li>• 정책방송 효과 측정의 정확도 한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• 반자동 데이터 수집·가공 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댓글·검색량·확산력 등 시청자 반응 반영 불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• 시청자 반응·댓글·참여도 분석 등 관심도 기반 정책 평가체계 기반 마련</li> </ul>

□ AI 영상 분석기술 도입

- (서버 증설) AI 서버 2대 증설 하여 KTV 보유 영상의 객체 식별, 메타데이터 자동입력 등 AI 영상분석 기능 구현

<p>AI 영상분석 예시 화면</p>	<p>AI 영상분석 관련 절차도</p>

□ AI STT SPEECH TO TEXT 기능 고도화

- (보유영상) AI STT(자막 생성) 전용 서버 2대 추가 도입하여 KTV 보유 콘텐츠의 자막 파일 생성 가속화\* 도모
  - \* 기존 시스템으로 총 보유 콘텐츠(778,137건, 175,118시간) 영상 변환 시, 6년 9개월 소요
- (실시간 생방송) KTV 생방송 AI 자동자막 시스템 도입 추진 계획 수립
  - (단계적 도입) ①오픈자막형 자동자막(방송) → ②온라인, SNS 플랫폼용

<KTV AI 자동자막 도입 추진 계획(안)>

2026년	2027년	2028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KTV AI 자막 추진계획 수립</li> <li>▲ CMS(콘텐츠관리시스템) AI STT 적용 중('25~)</li> <li>▲ 오픈자막 AI 자동자막 도입(구독형)</li> <li>▲ 온라인 AI 자동자막 구축 예산요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온라인 AI 자동자막 기술 테스트 (장비, S/W 등 예산 우선집행)</li> <li>▲ KTV 나누리포털 AI 자막 적용</li> <li>▲ 온라인 플랫폼 AI 자막 적용</li> <li>▲ 기존 폐쇄자막방송 병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KTV AI 자동자막 전면 실시 (홈페이지, 온라인플랫폼)</li> <li>▲ 기존 폐쇄자막방송 병행</li> </ul>

□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정성 강화

- (주조정실 송출시스템 개선) 송출시스템 재난복구(DR) 운영체계 마련
  - 비상상황 발생 시 송출 불가 상황에 대비, 주조정실과 별개로 1층 TPS(방송송출시스템)실 내 재난복구시스템 구축, 중계차 연결로 방송 송출

## 10 조직 역량 강화 · 조직 문화 개선

### □ 탄력적 조직 운영

- (기본운영규정 개정) ‘국정기록 전속기관’으로서 KTV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 및 부서 간 업무 조정(‘26.2~)
- (디지털 중계팀 신설) ①중계1팀(MNG)\* ②중계2팀(중계차 중계 전문팀)
- \* MNG 디지털 중계 전문화를 위한 민간협업(프리랜서) 활용 및 영상개방 2차 확산

#### <디지털중계팀 신설(안)>

	운영체계 → 2팀	팀장	PD	기술	카메라
디지털 중계팀	중계1팀(MNG)	1	2	2	4
	중계2팀(중계차)	1	2	기술부(지원)	영상부(지원)

### □ 조직문화 개선

- (팀장제도 개선) 팀장제 운영 개선안(팀장 임기제, 팀장 보직 부여 대상 확대 등) 마련으로 조직 분위기 쇄신
- (직무경험 확대) 방송무대직 5급 이하 대상 근무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한 부서 간 이동 및 교류 확대로 직무역량 및 조직 활력 제고